

히사 *there*의 격자질*

이 상 오

(호원대학교)

Lee, Sang-Oh. 2000. Case Feature of Expletive *there*. *Linguistics* 8-2, 117-134. There have been a lot of analyses proposed on English *there*-construction in the generative grammar tradition. Especially with the launch of the Minimalist Program, its analyses become more complicated with two major trends: one is the Category Movement Analysis(Chomsky(1991, 1993), Lasnik(1995a)) and the other is the Feature Movement Analysis(Chomsky(1995), Lasnik(1995b)). Focusing on the Case problems of *ther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assumptions that *there* has no Case feature, and *vice versa*. (Howon University)

1. 머리말

GB이론에서는 물론, 최소이론의 틀 내에서도 그 동안 *there*구문에 관해 많이 논의되어 왔다. *there*가 논리형태 접사(affix)라는 Chomsky(1991)의 가정은 *there* 분석에 그 동안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Chomsky(1991)는, *there*는 논리형태접사이기 때문에 그 접사가 해석가능하기 위해서는 논리형태에서 어떤 요소가 반드시 *there*에 부가되어야함을 주장했다. 다음 (1-2)는 그 주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2a)의 비문법성은 논리형태에서 명사구가 이동한 후 남긴 흔적이 공범주원리(ECP)를 위반한 이유로 설명을 했다.¹⁾

(1) a. [_{Ag_{rs}P} [[there] is [_{VP}[_{DP} a man] in the room]]] (S-structure)

b. [_{Ag_{rs}P} [[_{DP} a man]_i there] is [_{VP} t_i in the room]]] (LF)

*본 논문은 2000학년도 호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공범주원리의 위반에 대해서는 각주 2를 참조하라.

- (2) a. *there seems [CP that [AgrSP [a man] is in the room]]
 (S-structure)
 b. [[a man]_i there seems [CP that [AgrSP t_i is in the room]]] (LF)

우선, Chomsky(1991)에서는 관련명사구가 *there*로 논리형태에서 이동하게 되는 근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격문제나 일치문제 보다는 단지 논리형태접사로서의 *there*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음을 상기해야 하겠다.

Chomsky(1993)에서는 *there*가 논리형태접사로 간주되는 것은 Chomsky(1991)에서와 동일하 지만, 모든 이동은 형태론적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이동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1a)에서는 명사구 *a man*은 AgrsP의 Spec위치의 자질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논리형태에서 이동된다. 여기서 점검될 자질은 명사구의 φ -자질과 격자질인데 φ -자질은 Agrs와 격자질은 T와 점검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는 논리형태에서 어떤 요소가 부가되지 않은 *there*는 합법적(legitimate)이긴 하지만 해석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2a)에서 이미 격자질을 내포절에서 점검 받은 *a man*은 (2b)에서와 같이 더 이상의 이동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부가된 요소가 없는 *there*는 해석이 불가능해 지므로 결국 (2a)는 합치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린다. 공범주원리를 동원했던 Chomsky(1991)에서의 설명이 Chomsky(1993)에서는 일단 불필요해진다.²⁾

Chomsky(1995)에서는 *there*의 유일한 형식자질은 범주자질인 [D]뿐이라고 말한다.

...the expletive has neither Case nor φ -features. FF(there) contains only D, which suffices to satisfy the EPP: the expletive has no formal

2. (2)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문장도 설명될 수 있다.

- (i) *there seems [PP to [DP a strange man]] that it is raining outside

Chomsky(1991)의 설명: *a strange man*은 *there*에 부가된다. 그러나 부가된 후의 흔적은 공범주원리를 위반한다. 따라서 (i)은 비문법적이다.

Chomsky(1993)의 설명: 이미 격자질을 PP안에서 P에게서 점검 받은 *a strange man*은 더 이상의 이동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부가된 요소가 없는 *there*는 해석이 불가능해 지므로 결국 (i)은 합치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린다.

features apart from its category.

(2a)에서 주절 T의 [D]자질은 *there*의 범주자질 [D]와의 점검을 통해 방출되고 종속절 주어의 격자질은 이미 점검되었으므로 주절 T의 격자질이 점검관계를 맺지 못하여 도출은 파탄된다. 만일 *there*가 격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격자질이 주절 T의 격자질을 점검해주고, 종속절 주어의 일치자질이 올라와서 일치자질을 점검해 줄 수 있으므로 어떤 파탄도 일어나지 않는데 (2a)는 비문이다.³⁾ 따라서 Chomsky(1995)는 *there*가 격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there*와 부분격

허사 *there*의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과연 *there*의 격자질은 무엇일까? 관련명사구가 갖는 격에 관해서는 두가지의 견해가 있다. 첫째는 Chomsky(1995)의 견해로서 관련명사구가 허사 *there*가 가질 격을 대신 갖는다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허사 *there*는 격자질을 갖지 않고 관련명사구에 의해서 보충되어야 하므로 (3)과 같은 구문들에서 관련명사구들은 각각 (4)의 구문들에서 DP들이 갖는 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 (3) a. There is a book on the shelf.
- b. There arrived yesterday a visitory from England.
- c. I expected there to be a book on the shelf.
- (4) a. DP is... (DP=nominative)
- b. DP arrived... (DP=nominative)
- c. I expected [DP to be ...] (DP=accusative)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국부적 경제성(local economy)만을 인정하는 최소이론의 정신에 어긋난다. 즉, 관련명사구가 허사 *there*가 가지게

3. Chomsky(1995)는 해석자질은 해석을 받아야 하므로 논리형태에 남아있어야 하고 따라서 점검된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또 다른 점검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2a)에서 종속절 주어의 일치자질은 해석자질이므로, 종속절 T와의 점검관계를 맺은 후에도 삭제되지 않아 주절 T와 점검관계에 있을 수 있다.)

될 격을 예측하여 갖게 된다는 것은 예상적용의 비국부적 복잡성 (“look-ahead” global complexity)으로서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겠다. 또한 설사 관련명사구가 그러한 격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무엇이 격부여자 인지가 불분명하다. 즉, 도출의 과정상에서 어떤 격부여자가 (3a)의 *a book*과 (3b)의 *a visitor*에는 주격을, (3c)의 *a book*은 목적격을 갖도록 하는지 불분명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Lasnik(1995a, 1995b)은 Belletti(1988)의 주장에 입각하여 관련명사구는 부분격(Partitive Case)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관련명사구는 *be* 동사나 비대격동사에 의하여 부분격이 주어지고 이 부분격은 내재격이므로 이동의 필요없이 제자리에서 허가되거나 이동하여 핵-지정어 관계 속에서 점점된다고 주장한다.⁴⁾ 따라서 관련명사구의 이동을 유도하는 힘은 격 문제가 아니라 허사 *there*의 형태론적 결합이라고 한다. 즉 *there*는 논리형태부의 접사로서 부분격을 갖는 명사구와 합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there*에 관한 연구에서 허사 *there*와 그 관련명사구에 대한 밀접성은 논의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초점이다. *there*의 관련명사구는 분명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명사구이므로 그 격점점의 방식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there*가 격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be* 동사나 비대격동사가 부분격(partitive case)을 부여한다는 Belletti(1988)의 제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격에 대해 알아보고 *there* 분석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진단해 보고 문제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1 부분격(Partitive Case)

Belletti(1988)에 따르면, Italian에서 비대격 동사는 의미역 자리인 목적어 자리의 명사구에 본유적으로(inherently) 부분격(Partitive Case)을 수의적으로 부여하고 그 명사구는 반드시 비한정 명사구로 실현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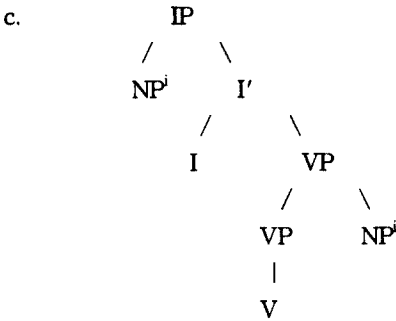
- (5) a. All'improvviso e entrato un uomo dalla finestra.
suddenly entered a man from the window
b. *All'improvviso e entrato l'uomo dalla finestra.

4. Lasnik(1995b)은 부분격이 구조격일 가능성 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만일 부분격이 구조격이라면 이것은 일반 대격과 마찬가지로 문자화 이후 목적어일치소의 지정어 자리에서 점점될 것이다.

- suddenly entered the man from the window
- c. Era finalmente arrivato qualche studente a lezione.
arrived finally some student to the lecture
- d. *Era finalmente arrivato ogni studente a lezione.
arrived finally every student to the lecture

또한 동사 뒤의 한정명사구는 VP에 부가되어 위치적으로는 목적어가 부여되는 자리인데 주격이 실현됨을, 일반적인 타동사가 목적격을 부여하는 구조적인 격부여처럼 Infl에 의해서 동사 뒤의 명사구에게 구조적인 주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 (6) a. E arrivato Gianni
arrived Gianni
- b. $[_{IP}[_{NP} \text{exp}]^i [_{I'} I [_{VP} e \text{ arrivato}] \text{Gianni}^i]]]$



이러한 격부여 방식에 따르면, 영어의 *be* 동사와 비대격 동사는 격을 점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본유적인 부분격이 부여된다면 그 동사와 명사구는 머리어와 보충어 관계로 그 자리에서 격을 점검 받을 수 있겠고, 구조격이 주어진다면 목적격처럼 논리형태에서 AGR_o의 SPEC 자리에서 점검 받게 된다. 그렇다면, Chomsky(1986)에서의 방식대로 *there* 구문에서의 명사구는 연쇄나 CHAIN을 통한 격전달 방식으로 격을 인가 받을 필요가 없다. 격전달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Belletti(1988)에서 보여지는 Italian 문장에서 연쇄를 통한 격전달의 방식이 아닌 Infl에 의해 직접적으로 구조격 표시함으로

써 목적어 위치에 주격을 실현하게 하는 방식에서도 시사되어 진다.

부분격에 관한 한, Belletti(1988)는 부분격을 갖는 명사구는 항상 비한정적인 의미를 선택함을 관찰하여 한정적 명사구는 배제됨을 제안한다. 영어의 *there* 구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문장들을 보자.

- (7) a. A man comes to the station.
b. The man comes to the station.

Milsark(1974), Safir(1985)가 밝히듯이 동사 앞 주어 위치에는 (7a-b) 처럼 한정적 명사구와 비한정적 명사구가 둘 다 가능한 반면, 동사 뒤 주어 위치에는 (8a)처럼 비한정적 명사구만이 가능하다.

- (8) a. There comes a man to the station.
b. *There comes the man to the station.
c. *There arrived every ship at the harbor.
d. *There is John that I had met last night.

손영숙(1992)은 동사 앞 주어는 주어로서의 자격을 고수하면서 이동된 동사에 의해서 부분격이 주어진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다음 (8a)의 D 구조와 S 구조는 각각 (9a)와 (9b)가 된다.

- (9) a. [_{IP} there [INFL [_{VP}a man [_{V'}come to the station]]]
b. [_{IP}there [INFL + come_i [_{VP}a man [_{V'}[t_i] to the station]]]

논항인 명사구 *a man*은 문법적 주어로서 '동사구 내(內) 주어 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에 따라 일반적인 주어처럼 (9a)의 위치에 생성된다. Chomsky(1986)는 *there*와 연결된 명사구가 논리형태에서 *there* 위치로 인상되어 *there*와 동지표를 갖게 되어 *there* 위치로 대치(substitution)됨을 고유격은 구조격과 결합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능력을 가정한다. 그러면 (9a)에서 부분격은 주격과 결합하기 위해서 이동을 감행한다. 이동된 동사(핵 이동)는 시제소와 일치 자질을 가진 INFL과 결합하여 VP 내적인 주어 *a man*에 부분적 주격(nominative-partitive Case)를 부여한다. Sohn의 이 가정은 주어와 동사의 일치문제, 명사구의 비한정적 효과들을 설명한다. 즉, (9)의

*a man*은 주어이며 결합된 동사 [INFL + arrive]는 부분적 주격을 부여한다. 주격은 주어와 동사사이의 일치를 점점하게 되고 Belletti(1988)의 가정대로 부분격은 동사 뒤의 명사구의 비한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Lasnik(1993)이 제기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부속어(associate)는 논리형태에서 주어 위치에서 그 격을 점점 받을 필요가 없다.

(10)의 문장을 다시 한번 고려하자.

(10) *e is a strange man in the garden.*

*a strange man*은 제 자리에서 *is*에 의해 본유격을 점점 받게 되고 시제소는 자질을 점점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시제소의 강 자질은 PF까지 남게 되어 (10)의 도출은 부서진다.

2.2 부분격과 관련한 *there* 분석의 문제점

Lasnik(1993)은 허사 *there*가 격자질을 갖고있다고 가정하면서 *there*의 격은 현시적 통사부(overt syntax)에서 head T에 의해 점점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T와 *there*의 격자질은 비해석성이므로 논리형태에서 점점후 삭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명사구가 논리형태에서 *there*에 부가된다 할지라도 *there*의 관련명사구의 격은 head T에 의해 더 이상 점점될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be*동사와 비대격동사는 관련명사구에 구조적 부분격(structural partitive case)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면 관련명사구를 *there*로 인상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물론 *there*의 부적격성(indadequacies)라고 말할 수 있다. 즉, *there*는 논리형태 접사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관련명사구가 논리형태에서 인상되어 *there*에 부가되지 않으면 소위 홀로 남게 되는 접사는 비합법적 대상을 보유하게 되어 논리형태 파탄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부분격가설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Chomsky(1995)처럼 *there*는 D자질만을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반면, Lasnik은 *there*는 강 N자질 뿐만 아니라 격자질도 갖는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there*의 관련명사구는 만일 그것이 인상되기 전의 원래 위치에서 격점점이 성공리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관련명사구는 절대 격인허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Lasnik은 계사 *be*와 비대격동사가 관련명사구에 구조적 부분격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자질인상(feature raising analysis)에서 처럼 허사 *there*가 D자질만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명사구의 N자질을 유인한다라고 생각해보자.⁵⁾ 다음 문장을 보자.

- (11) a. There is likely to be someone here.
- b. *There is likely someone to be here.

*there*의 소절분석을 가정하면, (11b)는 (12)처럼 된다.⁶⁾

5. Attract 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i) Attract F
K attracts F if F is the closest feature that can enter into a checking relation with a sublabel of K.
- (ii) Sublabel (Chomsky(1995:268))
A sublabel of K is a feature of H(K)^{OMAX}
In other words, a sublabel of K is one of the formal features which the maximal zero-level projection of the head K contains.

6. 허사구문을 소절(small clause)분석으로 Williams(1984, 1994), Moro(1997) 등의 학자들이 접근을 시도한다. *there*구문을 기본적으로 다음의 구조로 본다.

- (i) There be [NP XP]

위의 구조에서 Williams(1984, 1994)는 [NP XP]를 술어라고 주장하고 있고 Moro(1997)는 *there*를 인상된 술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Williams(1984)는 *there* 문장에서 *be* 동사의 보충어는 NP이지 SC(소절)가 아니라고 한다.

- (ii) There are [NP some people sick]

그러나 (ii)는 *there*가 허사 대치된 것이 아니라 인상된 것으로 분석하면, 다음 (iii)과 같이 *be* 동사의 보충어는 NP가 아니라 SC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iii) a. There are [_{SC} some people [_{AP} sick]]
- b. [There [are [_{SC} some people [_{AP} sick]]]]

Moro(1997)의 분석에서도 *there*를 허사 인상 술어로 분석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만일 소절의 주어나 술어가 모문의 주어 위치로 인상될

(12) There is likely [someone to be [t here]]

Lasnik(1993)의 부분격분석 방법에 의하면, (11b)에서 *someone*은 부분격이 부여되는 (12)의 *t* 위치에 있다가 EPP를 만족시키기 위해 종속절 TP의 Spec위치로 인상된다. (11b)가 비문법적이기 위해서는 *someone*은 인상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 *there*는 EPP가 만족되는 종속절 주어 자리에 삽입된다. 그러면 *someone*은 소절의 주어자리에서 종속절의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막게된다. 그래서 비합치한 문장이 된다. 그러나 Lasnik(1993)의 부분격분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1b)는 Chomsky(1995)의 이론으로는 옳게 분석될 수 없게된다.

부분격에 관련한 *there*분석은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한다. 첫째로, 부분격과 관련한 주장은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을 보자.

(13) There T+is someone in the garden.

관련명사구 *someone*은 부분격을 갖고 이것이 격점점을 위하여 복합동사구 시제소 +*is*에게로 이동하여 부가된다면, 관련명사구의 부분격과 복합동사구의 주격자질이일치하지 않게 되고(feature mismatch) 이렇게 되면 Chomsky(1995)의 가정에 따라 이 도출은 취소되게(canceled)된다. 결국 이 문장은 도출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둘째, 그의 가정대로 허사 *there*가 일치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일치자질은 관련명사구의 점점관계에서 점점되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제소 +*is*의 일치자질이 점점되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것이다. 동사의 일치자질은 비해석성이므로 이것이 그대로 논리형태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도출은 파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격자질이 점점되지 않은 명사구만 논향이동을 할 수 있다는 Lasnik(1995a)의 가정이 옳다면 (13)의 문장에서 부분격을 점점받은 *someone*이 이동을 할 이유가 없다.

수 있다면 다음 두 문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ivb)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 (iv) a. [_{NP} therei is [_{VP} [_{SC} a picture of the wall t]]]
- b. *[[_{NP} a picture of the wall is [_{VP} [_{SC} t there]]]

3. *there*의 격

이제 *there*의 격자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Chomsky(1995)는 *there* 구문에 자질이동이론(Move F theory)을 적용시켜 논리형태 자질부가(LF feature adjunction)으로 종전의 허사대치(expletive replacement) 방식을 재설명한다. (14b)는 (14a)의 명사구의 형식자질이 A_{grs}에 부가된 구조이다.

(14) a. There is a man in the garden.

b. [_{A_{grs}P} There FF(*a man*)_i+is_j+A_{grs} t_j t_i in the garden]

위 문장에서 Chomsky(1993)와 Groat(1995)의 분석에 따르면, *there*는 일치자질은 없지만 격자질은 있는 것으로 가정되므로 *there* 삽입을 통해 T의 주격자질이 점점, 삭제된다. 그리고 논리형태에서 (14b)에서 처럼 관련명사구가 *there*에 부가됨으로써 자신의 격자질과 일치자질을 점점받는다.⁷⁾ 즉, 이 가정에 따르면 T의 격자질은 *there*의 격자질과, T의 일치자질은 관련명사구의 일치자질과 점점관계를 맺는다. 한편, Chomsky(1995)에서는 허사 *there*는 격자질도 일치자질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A_{grs}로 논리형태부가를 하게되는 일련의 자질들은 A_{grs}/Tense의 격자질과 일치자질을 점점하게 된다. 따라서 허사의 관련명사구는 논리형태자질이동 전에는 격점점될 수 없는것이다.⁸⁾

그러나 Chomsky(1995)는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여 *there*의 유일한 형식

7. Chomsky(1993)에 따르면 *there*는 어휘적 의미가 없는 요소이므로 논리형태에서 개념-의도 체계가 해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구문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에 *there*를 삭제하는 방법과 관련명사구를 논리형태에서 *there*에 부가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최소단계원리를 어리게 되므로 Chomsky는 후자를 택하여 관련명사구가 *there*에 부가됨으로써 격자질과 일치자질을 점점받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 경우에도 Lasnik(1993)은 T의 주격자질이 이미 *there*와의 점점을 통해 삭제되었는데 어떻게 논리형태에서 관련명사구의 격자질과 점점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에, Groat(1995)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Lasnik(1993)의 입장을 받아들여 관련명사구의 격자질은 동사 *be*가 주는 부분격에 의해 점점되고 일치자질은 논리형태에서 *there*에 부가되어 점점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

8. 그렇기 때문에 Chomsky(1995)에서는 부분격(partitive Case) 부여문제는 가정될 수 없다.

자질은 격자질도 없고 범주자질인 [D]뿐이라고 주장한다.⁹⁾

(15) *There seem [that a lot of people are intelligent]

즉, 위 예문에서 주절 T의 [D]자질은 *there*의 범주자질 [D]와의 점점을 통해 방출되고, 종속절 주어의 격자질은 이미 점점되었으므로 주절 T의 격자질이 점점관계를 맺지 못해 도출이 파탄된다. 만약 *there*가 격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격자질이 주절 T의 격자질을 점점해주고 종속절 주어의 일치자질이 올라와서 일치자질을 점점해 줄 수 있으므로 어떤 파탄도 일어나지 않을텐데 (15)는 비문이다.¹⁰⁾ 따라서 Chomsky(1995)는 *there*가 격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가정은 다음과 같은 문장의 비문법성을 설명해 낸다.

(16) *there seems [PP to [DP a strange man]] that it is raining outside

(17) *there seems that [_{there} is a problem]

가정대로 *there*가 격자질이 없다고 본다면, (16)에서 일단 DP *strange man*의 형식자질은 논리형태에서 *to*로 인상되어 *to*와 *a strange man*의 격자질을 점점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there*는 격자질이 없으므로 주

9. 김연승(1997)은 허사 *it*과 *there*의 다음 대조를 근거로 *there*가 범주자질만을 가지고 있고 격자질과 일치자질을 결여한다는 Chomsky의 주장을 지지한다.

- (i) a. *There is believed that John is a genius.
- b. It is believed that John is a genius.

*there*가 격자질을 갖고 있다면, T의 주격자질은 *there*의 격자질과, 일치자질은 논리형태에서 *that*절의 일치자질과 점점관계를 맺게 되므로 절은 격자질은 없고 일치자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ia)가 비문일 이유가 없다. 따라서 *there*는 격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반면에 Groat(1995)에서 논의 되었듯이 *it*은 *there*와 달리 격자질과 일치자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T의 주격자질과 일치자질이 모두 점점되어 (ib)가 정문인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10. Chomsky(1995)는 해석자질은 해석을 받아야 하므로 논리형태에 남아있어야 하고 따라서 점점된 뒤에도 삭제되지 않고 또 다른 점점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15)에서 종속절 주어의 일치자질은 해석자질이므로, 종속절 T와의 점점관계를 맺은 후에도 삭제되지 않아 주절 T와 점점관계에 있을 수 있다.

절 T의 격자질은 점검받지 못한 상태로 논리형태에 남게되어 결국 (16)는 예상대로 파탄에 이르게 된다. (17)에서의 문제는 모문절과 종속절의 주격 점검에 관련되어 있다. 이때 격점검에 나설 수 있는 후보는 명사구 *a problem*인데, 논리형태에서 만일 모문절 T의 격자질을 점검하고 나면 *there*가 격자질이 없기 때문에 종속절 T의 격자질은 점검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되어 역시 파탄에 이르는 도출이 되고 만다.¹¹⁾

그러나 Lasnik(1995)은 *there*에는 격자질이 있다고 대립된 가정을 한다.¹²⁾ 따라서 이 논거는 *be*동사와 비대격동사가 관련명사구의 격을 점검한다는 가정과 논리형태 자질이동은 Agrs의 일치자질만을 점검한다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 즉, *there*가 T의 강한 NP 자질과 점검되면서 무임승차자로서 T의 주격자질은 점검된다고 한다. 따라서 관련명사구가 격을 점검하기 위해서 혹은 T의 형태론적 필요성에 의해서 허사에 대체 내지는 부가될 필요가 없다. 다만, 관련명사구를 *there*로 인상 부가하게 하는 요인은 *there*의 논리형태 접사 특성 때문이며 Agrs의 일치자질 점검을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 (18) a. *There seem to be a man in the garden.
- b. There seems to be a man in the garden.

(18b)에서 *a man*은 *be*로부터 격점검을 받고 *a man*의 일치자질만 *there*로 인상 부가하여 주절 Agrs의 일치자질을 점검한다고 보아 (18a)는 비문이고 (18b)는 정문으로 판정한다.¹³⁾

- 11. 격자질은 비해석성 자질로 간주되므로 일단 점검된 뒤에는 삭제된다고 본다.
- 12. 그러나 Chomsky(1995)와는 달리 *there*에는 일치자질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13. 그렇다면 만일 *there*의 유일한 형식자질이 범주자질뿐이라면 *there*구문에서 관련명사구의 일치자질과 격자질은 어떤 식으로 점검되는가? 다음 예문을 보자.

- (i) There_i T seem [t_i to be a man in the garden]
- [D] [D] [D] [D]
- [C] [C]
- [∅] [∅]

다음 절에서는 *there*의 격자질이 있다라는 가정과 *there*에 격자질이 없다라는 가정이 *there*구조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다. 각각의 논의에서는 부분격을 가정하는 논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여 부분격 문제는 논의에서 일단 배제 하겠다.

3.1 *there*에 격자질이 있음

다음 문장을 보자.

- (19) *there* seems _{t_{there}} to be a problem.
- (20) **there* seems *there* to be a problem.

(18)에서 *there*는 우선 종속절 TP의 Spec 위치에서 병합(merge)되어 종속절 T의 EPP자질을 만족시키고 모문 TP의 Spec 위치로 인상되어 모문절 T의 EPP자질을 다시 만족시킨다. 다음, *a problem*의 형식자질들이 인상되어 모문절 T의 비해석성 격자질과 일치자질의 점점에 나서게 된다. 문제는 (20)이 왜 비문법적인가에 달려있다. 즉, (20)도 (19)처럼 자질인상이 이루어져 모문절과 종속절에서 각각 EPP 자질이 만족된다. *there*가 의미적으로 모호할진대, (20)은 (19)와 차이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경제성원리도 (20)의 비문법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20)에서 EPP 자질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관련명사구 *a problem*을 이동시키는 방법과 허사를 TP의 Spec 위치에 병합(Merge)하는 방법이 있다. Chomsky(1995)의 가정대로 병합은 이동보다 경제적이다. 이 병합의 경제성에 의하여 (20)은 다음과 같이 (21-24)의 도출과정을 거친다.

종속절 T의 범주자질의 점점을 위해 삽입된 *there*는 주절 T의 범주자질의 점점을 위해 이동된다. *there*의 흔적은 범주자질 외에 어떠한 형식자질도 없으므로 *a man*의 격자질과 일치자질이 주절 T의 격자질 및 일치자질과의 점점관계를 맺는 것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a man*의 형식자질들이 논리형태에서 주절 T로 직접 이동하여 자질들을 점점받는다. 이는 *there*구문에서 관련명사구의 형식자질들은 *there*와는 별개로 자신의 자질들을 점점해 줄 기능범주의 자질들이 있다면 점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1) [_{TP} to [_{VP} be a problem]]
 (22) [_{TP} there to [_{VP} be a problem]]
 (23) [_{TP} T [_{VP} seems [_{TP} there to [_{VP} be a problem]]]]
 (24) [_{TP} there T [_{VP} seems [_{TP} there to [_{VP} be a problem]]]]

(22)과 (24)의 병합은 종속절과 모문절의 EPP 자질을 만족시키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마지막 도출인 (24)에는 남겨진 강자질이 없으므로, 합법적인 PF를 이끌어낸다. 또한 점검될 자질들은 모문절 T의 비해석성 격자질과 \varnothing 자질, 그리고 *a problem*의 격자질이다. 여기서 *a problem*의 형식자질들이 비현시적으로 모문절의 T로 이동하면 이 자질들이 모두 점검된다. 따라서 (20)은 PF와 LF 모두 합법적인 도출을 보여주기 때문에 합치하는 문장으로서 문법적일 것이다. 병합의 경제성 접근방법도 여기서는 설명력이 떨어진다.

만일 여기서 *there*가 격자질이 있어서 격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20)의 문장은 *there*의 격으로 해결된다는 점이 지금 논의의 초점이다. 즉, (20)에서 *a problem*이 모문절 *there*의 격자질을 점검해 버리면, 종속절 *there*는 그 비해석성 격자질을 점검할 길이 없다. 따라서 (20)은 파탄에 이르러 비문법적이다.

*there*가 격자질을 갖는다는 가정은 다음 문장들에서도 확인된다.

- (25) a. there looks [_{CP} as if there is a problem with this analysis]
 b. there look [_{CP} as if there are problems with this analysis]
 c. *there looks [_{CP} as if there are a problems with this analysis]

위 문장들에서 동사와 *there*의 관련명사구와의 일치관계가 종속절과 모문절에서 공히 의무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은 관련명사구의 \varnothing 자질을 포함한 형식자질이 모문절과 종속절의 T에 둘 다 부가됨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사실은 이 형식자질들이 정형절(finite clause) 밖으로 인상될 수 있음을 또한 말해준다.¹⁴⁾ 그러나 관련명사구는 단 하나의 격자질을 보

14) 정형절(finite clause)을 넘어서 허사나 DP자질이 인상되는 A-이동이 불가능함을 말해주는 다음 문장들에 대한 반례가 된다.

(i) *there seems [_{CP} that a man left]

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명사구는 하나의 T에 대해서만 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사실 역시 *there*는 격자질을 갖고 격을 점검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25a-b)에서 모문절과 종속절의 T는 형식자질인상에 의해서 점검될 필요가 있다. 일치자질은 관련명사구의 해석성자질이기에 때문에 이 일치자질들은 점검후 바로 삭제되지 않아서 종속절과 모문절 T와 자질점검을 할 수 있다.

3.2 *there*에 격자질이 없음

다음 문장들을 보자.

- (26) a. [it seems that [_{TP} [many people]_i are [_{PP} t_i in the room]]]
- b. [there_i seems [_{TP} t_i to be [_{PP} a man in the room]]]
- c. *[there_i seems [_{TP} t_i to be [_{PP} many people in the room]]]
- d. *[there seem that [_{TP} [many people]_i are [_{PP} t_i in the room]]]

(26a)의 구조가 합치함을 보아서, 모든 비해석성 자질들이 논리형태에서 분명히 점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속절에서 명사구 *many people*은 T의 강자질을 점검하기 위해서 *be*동사 뒤의 위치로부터 이동된 것이다. 이 이동은 또한 다른 점검관계를 수반하게 된다. 그 중 하나는 *many people*과 T의 격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many people*과 [are+T]의 ϕ 자질(일치자질)의 관계이다. 이제 종속절의 모든 비해석성자질은 점검된 셈이다. 모문절의 비해석성자질을 보자면, 적어도 T의 격자질, 강한 D자질, 그리고 *seems*의 ϕ 자질이다. 허사 *it*는 D자질, 격자질, ϕ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 분명하여 다른 범주들의 모든 비해석성자질들을 점검하게끔 하여 논리형태에서 완전해석이 만족되는 셈이다.

(26b)를 보자. *There*는 종속절 TP의 도출상에서 specifier로서 삽입되었다가 모문절 TP의 spec위치로 이동해 간 것이다. 따라서 *there*는 모문절과 종속절의 EPP를 점검하기 위해서 적어도 해석성 D자질을 가지고 있음에 분명하다. 한편, (26b)와 (26c)를 비교하여 보면, *there*의 관련명사구가 모문동사의 일치를 결정함을 보여준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there*는 ϕ

(ii) *there seems that [t_{there} is a problem]

자질이 없다라는 것과, (26b)에서 관련명사구의 형식자질은 비현시적으로 (covertly) 인상되고 모문 T에 부가되어 FF(*a man*)의 φ 자질과 [FF(*seems*)+T]의 φ 자질사이의 점검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26b)에서 관련명사구의 비현시적이동은 그 격자질을 T의 격자질과 함께 점검의 형상을 만들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T가 그 격자질이 *there*에 의해서 점검받느냐 아니면 관련명사구에 의해서 점검받느냐의 문제이다. 우선 *there*에 의해서라고 가정하고 (26d)를 보자. (26d)에서 관련명사구는 종속절 T의 격자질과 감자질, [are+T]의 φ 자질을 점검한다. 우리는 위에서 *there*는 φ 자질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관련명사구는 비현시적으로 인상되고 [FF(*seem*)+T]의 φ 자질을 점검한다. 관련명사구의 φ 자질은 해석성이며 이 이동이 있기 전에는 종속절에서 아무런 점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이동은 합법적인 연쇄를 형성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there*는 강 D자질을 점검할 수 있고 가정에 따라 모문T의 격자질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비해석성자질은 (26d)에서 논리형태에서 점검되어 이 도출은 합치해야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편, *there*에 격자질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26d)의 비문법성은 완전해석원리를 어기게 된다. 관련명사구의 형식자질이 [FF(*seem*)+T]의 φ 자질을 점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련명사구의 형식자질들은 T의 격자질은 점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관련명사구의 격자질은 이미 종속절에서 점검된 상태이고 격은 비해석성 자질이기 때문이다. 만일 T가 *there*에 의해서도 점검받지 못한다면 이 도출은 논리형태에서 파탄되는 결과가 되어 (26d)의 비문법성이 예측된다.

만일 (26d)가 이처럼 분석될 수 있다면 (26a-d)에서의 계사 *be*는 격자질을 가질 수 없다고 가정해야 한다.(Chomsky(1993, 1995)는 계사 *be*는 격자질을 가질 수 없다고 가정했으며 Belletti(1988), Lasnik(1993), Chomsky(1994)는 계사 *be*는 격자질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26b)에서 관련명사구의 격자질이 *be*동사의 격자질과 점검관계에 들어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결국 지금까지의 논의에서처럼 (26)의 문장들은 허사 *there*는 단지 해석성 D자질만을 보유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there*는 격자질을 갖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4. 결론

지금까지 *there*구문의 분석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there*의 격자질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부분격을 가정한 논의는 *there*의 격문제를 논의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보았고, *there*의 격자질이 있다라는 가정과 *there*에 격자질이 없다라는 각각의 가정이 *there*구조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각각 살펴보고 논의해 보았다.

참고문헌

- 김연승. 1997. "영어에서의 격점점의 유형과 방식," 영어영문학 제 43권 1호, 171-195.
- 손영숙. 1992. "There-constructions Reconsidered: Case and Agreement," 언어학과 인지, 한국문화사.
- Belletti, A. 1988. "The Case of Unaccusative," *Linguistic Inquiry* 19, 1-34.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Praeger, New York.
- Chomsky, N. 1991.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al and Representation," in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ed. Robert Freidin, 417-454. Cambridge, Mass: MIT Press. [Reprinted in *The Minimalist Program*, Noam Chomsky, 129-166. 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eds. Kenneth Hale and Samuel Jay Keyser,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Reprinted in *The Minimalist Program*, Noam Chomsky, 167-217. 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 Chomsky, N.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5. MIT.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MIT Press.
- Groat, E.M. 1995. "English Expletives: A Minimalist Approach," *Linguistic Inquiry* 26, 354-364.
- Jang, Y-J. 1997. *Tense and Complementizer Feature-Checking*, Ph D dissertation, Harvard.

- Lasnik, H. 1993. "The Minimalist Theory of Syntax: Motivations and Prospects," Ms., University of Connecticut, represented in the Second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enerative Grammar.
- Lasnik, H. 1995a. "Case and Expletives Revisited: On Greed and other human failings," *Linguistic Inquiry* 26:4, 615-633.
- Lasnik, H. 1995b. "Last Resort and Attract-F," ms., Univ. of Connecticut, Storrs.
- Milsark, G. 1974. *Existential sentences in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achusetts
- Moro, A. 1997. *The Raising of Predicates: Predicative Noun Phrases and the Theory of Clause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fir, K. 1985. *Syntactic Chai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liams, E. 1984. "There-insertion," *Linguistic Inquiry* 15, 131-153.
- Williams, E. 1994. *Thematic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Series 23,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573-718 전북 군산시 임피면 율하리 727

호원대학교 영어과

E-mail: iso@sunny.howon.ac.kr

Fax: +82-63-450-7450